

여성 이야기로서의 『겐지 모노가타리』 읽기

[서평] 무라사키시키키부 지음, 이미숙 주해(2014),
『源氏物語 겐지 모노가타리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28쪽.

김 병 숙*

1. 한국에서의 『겐지 모노가타리』 번역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는 일본문학의 정수이자 일본문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문학사상의 평가를 보면 ‘『겐지 모노가타리』는 전기 모노가타리(傳奇物語)의 전기성과 우타 모노가타리(歌物語)의 서정성, 일기 문학의 내면응시의 시점을 이어받아 종합적으로 완성시킨 일본 고전문학의 최고걸작이라고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하나의 문학 작품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미의식의 총체로 평가받으며 정전(正典)으로서 권위를 유지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원문이 품고 있는 내재적인 풍요로움이라.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여성 작가인 무라사키시키키부(紫式部)가 쓴 『겐지 모노가타리』가 이 세상에 나온 지 천 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현대인이 천 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강사

의 시차를 두고 천 년 전의 일본어로 쓰인 『겐지 모노가타리』를 통해 헤이안 왕조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 심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풍요로운 원문의 세계를 재구성한 번역서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즉 번역서는 시공의 간극을 매우며 원전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셈이다.

한국에 『겐지 모노가타리』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900년대이다. 일반 독자로서 『겐지 모노가타리』를 처음으로 읽은 사람은 현재 육당 최남선으로 추정하고 있다.¹⁾ 최남선이 언제 어디서 『겐지 모노가타리』를 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평론에 『고지키』(古事記) 『만요슈』(万葉集) 『겐지 모노가타리』 등의 작품명이 인용되어 있으며, 일본의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はれ)에 대해 조선의 '정(情)을 대비하여 문학이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고전문학에도 깊은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남선은 1931년 2월 2일 경성부립도서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불행하게도 半島에는 紫式部만한 才人이 태어나지 못하여 <源氏物語>와 같은 자랑할 만한 作品을 남기지 못했다”²⁾고 하면서 작자 무라사키시키투와 『겐지 모노가타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후 『겐지 모노가타리』는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의 입학시험문제로, 또 고전과(古典科) 과정의 문학사 강좌에 포함되었으리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겐지 모노가타리』는 일본의 국제나 미의식을 구현한 작품으로 획일적인 의의를 강요받은 것이었다.³⁾ 즉 식민지 조선에서 이 작품을 접한 조선의 엘리트들이 『겐지 모노가타리』를 순수하게 문학 작품으로 감상하기에는 시대적, 역사적인 제약 요인이 있었다 할

1) 金鍾德(2002), 『韓國における『源氏物語』の翻訳と研究—北京『源氏物語』國際會議, 『源氏研究』7, 翰林書房, p. 172.

2) 催南善, 윤재영 역(1974), 『日本에 있어서의 朝鮮의 모습』, 『六堂催南善全集』9, 玄岩社, p. 425.

3)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겐지 모노가타리』 교육과 수용태도 등에 관해서는 김영삼의 『植民地朝鮮에 있어서의 源氏物語—京城帝國大學의 教育實態와 受容様相』, (『日本研究』21,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3)에 상세하다.

수 있다.

『겐지 모노가타리』가 한국의 대중에게 외국의 문학작품으로 다가선 것은 유정(柳昞)의 번역에 의해서이다. 1975년도에 을유문화사에서 출간된 『겐지(源氏) 이야기』(上)(下)는 세계문학전집의 4, 5권으로 출판되었다. 유정은 『겐지(源氏) 이야기』(上)에 쓴 해제(解題)에 번역시 청표지본(靑表紙本)인 『일본고전문학대계』(日本古典文学大系)와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현대일본어역을 참고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와카(和歌)를 한국의 시조 음수율에 맞춰 번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⁴⁾. 한국인에게 익숙한 용어나 시가의 체제를 이용하여 번역한 점이 특징이다.

두 번째는 전용신(田溶新)의 번역으로 1999년 나남출판에서 나왔다. 쇼가쿠칸(小学館)의 『일본고전문학전집』(日本古典文学全集)의 현대일본어역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 이 번역에서는 문화적인 배경을 담은 어휘나 원전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역이 상당히 많다. 이 외에도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나 관직명을 모두 음독으로만 번역하여 일본어가 갖는 이미지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⁵⁾는 지적이 있다.

세 번째는 김난주에 의한 번역(한길사, 2007)이다. 이는 세토우치 자쿠초(瀬戸内寂聴)의 현대일본어역을 옮긴 것이다. 세토우치는 한 인터뷰에서 이전에 일본에서 이루어진 『겐지 모노가타리』 현대어역본 중 엔치 후미코(円地文子)의 역을 “명문이며 아름다운 문장으로 번역하였다”며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 명문조차 지금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진다 하며, 자신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중학생부터 영리한 아이라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번역하고 싶었

4) 紫式部 柳昞 역(1982), 『겐지(源氏) 이야기』(上), 乙酉文化社, pp. 25~28.

5) 金鍾德(2008), 「韓国における『源氏物語』の翻訳と研究」, 『源氏物語国際フォーラム集成』, 源氏物語千年紀委員会, p. 307.

다고 번역의 계기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번역은 원문의 내용에 충실하지만, 문장의 센텐스까지는 충실하지 않다, 긴 문장은 잘라 짧게 했음을 이야기했다.⁶⁾ 세토우치의 바람대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녀의 역서는 일본 내의 『겐지 모노가타리』 붐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난주의 번역은 이러한 세토우치 역의 내용과 체제를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

위 번역의 공통점은 『겐지 모노가타리』의 현대일본어역을 번역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일본 작가의 번역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원전과의 다소의 차이는 불가피하다 하겠다. 상기의 3종의 번역과는 달리 이미숙의 『源氏物語 겐지 모노가타리1』은 원전을 번역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에도 김종덕의 『겐지 이야기』(지만지, 2008) 등에서 고어 원문의 번역이 이루어졌으나, 각 권의 대표 장면의 초역(抄譯)으로 본격적인 원문 번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본 서평에서 다루는 이미숙의 역서는 『겐지 모노가타리』 총 54권 중 1권인 「기리쓰보」(桐壺)권에서 8권인 「하나노엔」(花宴)권까지이다. 아베 아키오(阿部秋生) 외 교주·역(1994), 『源氏物語①』(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20, 小学館)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주해한 것이다. 총 여섯 권의 번역·주해서로 완간될 예정이며, 그 첫째 권이다. 첫째 권이니만큼 해제를 첨부하여 작품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된 해제는 이전의 모노가타리와는 다른 새로운 모노가타리로 자리매김된 『겐지 모노가타리』의 주제의식, 헤이안 시대 여성 작가들에 의해 산문문학이 발달한 이유, 작자 무라사키시키키부, 작품의 성립 시기와 구성 그리고 주제, 작품의 형성에 영향을 준 일본내외의 문학작품, 본문의 계통, 연구사, 수용사, 한국어 번역과 그 의의에까지 이른다. 작품의 성립에서부터 천 년

6) 2004년 11월 10일 有鄰堂의 松信裕가 세토우치 자쿠초를 인터뷰한 내용 중에 수록되어 있다(『インタビュー 瀬戸内寂聴さんに聴く 源氏物語、そして幻の一帖「藤壺」』 Web版 『有鄰』第444号, p. 2).

의 독서의 역사까지를 아우르는 내용을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으로, 일본 고전문학 연구자로서의 역자의 역량과 면모가 잘 드러난다.

짧지 않은 한국에서의 『겐지 모노가타리』 감상과 연구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번역이 없다는 점은 일본 고전문학 연구자에게 무거운 과제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이는 『겐지 모노가타리』의 번역이 그만큼 지난(至難)한 일임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그렇기에 원전의 충실한 번역과 더불어 상세한 주해를 단 본 역서의 출간이 더욱 큰 의의를 지닌 것으로 다가온다.

이하 본 역서와 기존의 번역서와의 차별성과 역자의 『겐지 모노가타리』에 대한 작품관을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2. 원전 번역의 특징

일본의 국문학자이며 민속학자인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는 늘 『겐지 모노가타리』의 불행은 너무 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등장인물과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 작품 속에 가타리테(語り手)라는 화자가 설정되어 있는 점, 인물 간의 관계에 따라 사용되는 존경과 겸양표현, 나아가 섬세한 심정표현과 와카에 이르기까지 번역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미숙과 김난주의 번역의 차이를 통해 원전 번역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인용문은 「기리쓰보」권에서 기리쓰보 갱의(桐壺更衣)를 잃고 상심에 빠진 천황에게 궁인이 기리쓰보 갱의의 친정어머니의 서찰을 건네는 장면이다.

【인용문1】

a참으로 소상히 사가의 상황을 b물으신다. 가슴이 멍멍하였던 일을 나직이 아뢴다. 갱의의 친정어머니가 보내신 답신을 보시니 이러하다.

너무나도 황송한 말씀은 어찌 반잡아야 할는지요. 그러한 말씀에도 마음은 온통 어둡고 어지럽기만 하옵니다.

(갱의의 친정어머니)

c황량한 바람 막아선 나무 그늘 말라 버린 뒤
어린 싸리 걱정에 마음 편할 날 없네

d이렇듯 앞뒤도 맞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마음이 어지러웠을 때의 일이라고 너그럽게 보아 넘기실 것이다.

e추상께서는 이다지도 슬픔에 젖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마음을 다스리시지만, 도저히 끝까지 억누를 수가 f없으시다.

(이미숙 역, 96~97쪽)

【인용문2】

a'천황은 명부에게 갱의의 사가 근황을 자세하게 b'물었습니다. 명부는 모든 것이 슬프기 그지없었다고 절절한 마음으로 폐하게 아뢰었습니다. 갱의의 어머니가 보낸 글월을 보니 이러하였습니다. "분에 넘치는 글월, 황송하여 둘 자리조차 없사옵니다. 이렇게 감읍한 말씀에도 여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 있다면 하고 간절하게 바라니, 마음은 어둡고 가슴이 혼란스러울 뿐이옵니다."

c'매섭게 휘몰아치는 바람을 피하도록
늘 작은 싸리를 지켜주었던 그 나무
그 나무가 시들어 메마른 날부터
작은 싸리는 어찌 되었을까
걱정스러워 견딜 수가 없으니

d'천황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시도 곁들여 있었으나, 천황은 갱의 어머니가 슬픔에 겨운 나머지 마음이 어지러운 때이니 무리도 아니라며 너그럽이 용서해주시겠지요.

e'“이리도 흐트러진 꼴은 보이고 싶지 않으니”

천황 자신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려 하였으나, 도저히 참을 수가 f'없었습니다. (김난주 역, 37쪽)

【인용문1】은 이미숙의 번역이며 【인용문2】는 김난주의 번역이다. 【인용문1】은 원전의 어구를 빼거나 보탬 없이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용문2】는 주어를 삽입하거나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맥락상 내용을 보충하여 삽입하는 등 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본 역서에서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어와 술어, 기타 표현을 보충하거나 단락과 문장을 세분하고, 어순을 변경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저본의 원문에 입각하여 번역하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두 역서의 차이점을 세분하면 a. 주어 등의 명기 여부, b. 존경표현의 유무, c. 와카 번역, d. 내용의 보충, e. 지문(地の文)과 대화문의 차이, f. 시제 처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문장구성상 주어 등의 생략은 문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단점을 본 역서에서는 b의 '물으신다'와 같이 천황과 궁녀의 신분 차이로 인한 존경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행위의 주체와 상대를 분간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원전의 서술방식이다. 원전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독자의 섬세한 감각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와카의 번역이다. 김난주 역에서 와카는 c'와 같이 5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와카의 본래 형태와는 동떨어져 시가라는 느낌이 적다. 와카는 5·7·5·7·7의 음수율을 지닌 정형시이다. 31자로 이루어지는 와카는 하나의 가어(歌語)가 중의적, 다의적으로 사용되며 의미를 확장

시켜 나가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번역 시 와카의 음수율을 지키며 그 한 수의 의미를 다 담아내기란 여간한 일이 아니다. 유정도 해제에서 와카의 처리 방법이 적지 않은 골칫거리였음을 토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음수율이 각 민족의 특성의 표현이므로, 이를 그대로 타국어로 옮겨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보다도 넌센스인 것이다. 역자는 우리나라의 시조 형식의 일부를 차용하여 7·7음 × 2행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예를 들면 인용문과 같은 장면의 와카를 유정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찬바람 거센 바람 막아내신 그늘에
 끝끝내 시들었네 싸리꽃 그 어린 꽃 (유정 역, 12쪽)

한국인에게 익숙한 3·4음을 이용하는 것도 번역의 한 방법이라. 그러나 31자 속에 감정을 응축시켜 표현하는 와카의 운율을 한국어로도 유지하며 그 의미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다면 와카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충실하게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역서의 와카 번역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d부분도 김난주는 ‘천황을 무시하는 듯한 시’라 하여 그 내용을 삽입한 데 반해 본 역서는 원문의 직역에 가깝다. ‘앞뒤도 맞지 않는 내용’이란 갱의의 친정어머니가 읊은 와카에 어린 히카루젠지의 또 하나의 나무 그늘인 기리쓰보 천황의 존재가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역서의 d와 같은 번역만으로는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역자는 이러한 단점을 각주의 설명을 통해 보완한다. 본 역서에서 각주는 용어 해설과 내용의 설명 뿐 아니라 학자들의 관련 연구 결과 및 경향까지 소개하고 있어 심도 있는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번역 시 어려운 점의 하나가 지문과 대화문의 구별이다. 지문은 작중화자인 ‘가타리테’의 말이다. 작품 안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가 설정되어 있는 일본의 모노가타리 문학의 특징을 의식하지 않으면 오역

하기 쉬운 부분이다. 김난주 역에서는 e부분의 가타리테의 말을 천황의 대화문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본 역서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제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어로는 김난주 역처럼 과거형으로 처리하는 편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본 역서는 현재형 처리가 많다. 이는 ‘가타리테’에 의해 모노가타리가 전개되는 것에 따르는 특징이다.

즉 본 역서는 『겐지 모노가타리』 원문이 지닌 본래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며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역자의 자세가 잘 드러난 번역이라 평가할 수 있다.

3. 여성을 위하여 여성이 쓴 여성의 세계를 그린 이야기

『겐지 모노가타리』는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서명으로 인식되기 전, 헤이안 시대에 <겐지의 이야기> 혹은 <가오루 대장의 이야기>라는 식으로 불리며, 남성 주인공의 일생을 따라 남성이 권력을 획득해 가는 이야기, 남성이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분방한 연애 이야기로 해석되어 왔다. 즉 기본적으로 히카루겐지, 가오루라는 인물이 없으면 겐지 모노가타리의 세계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자가 해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영화의 최고 정점에서 일생의 반려자인 무라사키노우에의 죽음으로 삶의 고통과 슬픔을 절감하고 만년에 인생의 의미를 재음미하고 있는 히카루겐지, 오이기미의 죽음으로 그녀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찾으며 허무함을 절감하는 가오루의 모습은 이 작품이 그리고자 하는 것이 세속적 영화나 종교적 도심(道心)을 깨닫는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그렇다면 여성 등장인물들도 남성의 연애 상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상대화하며, 여성의 삶을 드러내는 존재로 읽을 수 있다. 더욱이 『겐지 모노가타리』가 여성 작가

에 의해 쓰인, 여성을 주된 독자로 상정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데 염두를 두고 본 텍스트를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춰 읽었을 때 깊이 있는 내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역자가 『겐지 모노가타리』를 ‘여성 이야기’로 보는 시각은 그간의 연구논문을 통해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시각이다. 즉 본 역서는 역자의 그간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역자는 『겐지 모노가타리』에 있어서의 ‘여성 이야기’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히카루겐지와 가오루를 중심으로 하는 남성 모노가타리가 지향하는 ‘슬프고 무상한 세상’ ‘덧없고 근심 많은 세상’이라는 인식과 상통하지만, 남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괴로움에 ‘여성’이라는 젠더로서의 괴로움까지 더해진 이중적인 ‘삶의 괴로움’을 구체적인 여성들의 삶의 방식 안에 구현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⁷⁾

그리고 이러한 여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괴로움의 바탕에는 사회적 제도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들의 삶이 남성들보다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법제적인 규정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인 일부다처제라는 헤이안 시대 혼인제도 속에서 고착된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 탓이다.

(「해제」 39~40쪽)

헤이안 시대의 결혼풍습은 남성이 여성의 집을 방문하는 초서혼(招婿婚)이었다. 또한 한 남성이 여러 여성의 집을 방문하며 결혼생활을 해 나갔으며, 남성의 방문이 중단되면 그것으로 결혼은 해소되었다. 이러한 혼인제도 속에서 여성은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7) 李美淑(2009), 『源氏物語研究—女物語の方法と主題』, 新典社研究叢書197, pp. 21~22.

『겐지 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의 삶은 신분과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 역서에서만 해도 히카루겐지의 이상적 여인으로 의붓어머니라는 관계임에도 밀통을 저지르게 되는 후지쓰보, 고귀한 신분의 교양 있는 여성이지만 히카루겐지를 향한 강한 정념으로 인해 모노노케가 되는 로쿠조미야스도코로, 후지쓰보와 너무나 닮은 외모로 인해 히카루겐지의 관심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의 일생의 반려자가 되는 무라사키노우에와 같은 높은 신분의 여성도 있는 반면, 히카루겐지에게 마음이 끌리면서도 지방관의 후처라는 자신의 비천한 신세와 신분의식으로 인해 그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우쓰세미, 고귀한 신분의 여성과의 연애에 지쳐있던 히카루겐지의 마음을 위로해주던 유가오 등의 중류 계층의 여성도 등장한다. 이들은 각각 신분의 문제, 후견의 문제, 용모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민한다. 그리고 더불어 일부다처제라는 사회적인 제도로 인해 겪게 되는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작자 무라사키시키키부는 이러한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을 “부부의 인연이란 이다지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해진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자의 운명이란 참으로 떠 있는 듯 불안정하니, 안쓰럽습니다”(『하하기기』 권, 179쪽)라는 말을 통해 드러내기도 한다.

41권으로 이루어진 정편의 둘째 권인 『하하기기』 권에는 흔히 ‘비 오는 날 밤의 여성 품평’이라 불리는 장면이 있다. 비 오는 날 밤 히카루겐지와 두중장, 좌마두, 식부승이라는 네 명의 남성이 숙직실에 모여 자신들의 개인적인 체험담을 늘어놓는다. 이를 통해 이상적인 여성의 마음가짐과 태도 등에 대한 일반론을 개진한다. 이 장면은 전적으로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여성의 태도와 행동을 기술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내면과 삶은 그 자취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역자는 ‘비 오는 날 밤의 여성 품평’을 여성 이야기의 주제와 배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 오는 날 밤의 품평’은 같은 중류 계층 출신인 작자 무라사키시

키부의 여성의 삶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반성적 품평으로도 읽힌다. 상류 계층이나 하류 계층의 여성과는 달리 결혼을 계기로 삶의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중류 계층 여성의 삶의 문제를, 여성 독자에게 다시금 사유하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비 오는 날 밤의 여성 품평'은 그 시대 남성 일반의 여성관, 헤이안 시대 귀족사회의 보편적인 여성관, 여성에 대한 그 시대 남성의 물음과 비판을 통해, 그 시대 여성이 처한 문제를 더욱 객관화시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하키기』권 해설, 204쪽)

역자의 일관된 작품관을 엿볼 수 있는 해설이다. 이러한 태도는 무라사키노우에의 삶과 관련된 해설(『기리쓰보』권, 『와카무라사키』권)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과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관은 성차(性差)에 따른 삶의 방식의 차이만큼 그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당대의 일반적인 여성관을 드러내는 남성의 시각과는 달리 여성의 시각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더해져 더욱 진실성을 띠기 때문이다.

『겐지 모노가타리』의 내용은 흔히 '히카루젠지라는 귀족 남성의 호색적인 삶의 이야기'로 요약된다. 역자의 '여성 이야기'라는 관점은 이러한 일반 독자의 기존의 시각을 새롭게 하여 다양하게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방향과 문학의 진실성을 제시하는 점에서 매우 유효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숙의 『겐지 모노가타리』 번역·주해는 총 6권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본 서평에서 다룬 것은 그 첫째 권이다. 남은 번역 작업이 잘 마무리되어 아무쪼록 역자의 원전에 대한 풍요로운 해석을 내놓을 수 있기를 독자로서 또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기대한다.